

이만재 칼럼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서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생각과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 엄청나게 다가와 인간생활의 모든 면을 변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서양에 있어 산업혁명이 한 예로 볼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의 혁명을 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혁명은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미디어에 의한 혁명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의한 혁명은 역사적으로 처음은 아니며 인류 역사상 이미 한 번 경험한 바 있다.

15세기 베니스에 앨더스(Aldus)라는 이름을 가진 한 학자는 최초의 대규모 출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앨더스의 비전은 당시까지 전해내려오는 모든 그리스 문헌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큰 어려움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우선 원고를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원고가 발견되어도 필사본으로 서로 다른 내용일 경우가 있어 이를 편집할 전문인이 필요하며, 인쇄할 용지를 구하는 일도, 이를 인쇄할 인쇄기를 구하는 일도 당시로는 엄청난 일이었다. 또한 이런 노력을 들여 책을 출판한다고 해도 이를 원하는 일반인에게 어떻



(솔빛조션미디어 사장)

게 보급해야 하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노력을 보상해 줄 저작권법도 없는 상태이었음은 물론이다. 앨더스의 비전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출판할 수 있는 내용의 수집, 내용을 싼 가격으로 대량인쇄할 수 있는 매체,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출판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다. 여기까지 읽어 온 독자는 오늘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출판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앨더스의 시대로 옮겨 보자.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토만제국에 의해 멸망되기까지는 그리스의 문헌은 거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문헌들은 교회나 수도원에 소중히 보관되었으며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함께 교회와 수도원에 있던 학자와 승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소중히 아끼는 그리스 문헌을 품에 안고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이태리로 대거 피난하여 오게 되었다. 그 결과 당시까지는 이미 없어졌으리라는 귀중한 문헌들이 속속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고전 라틴어로 쓰여진 문헌들은 당대의 이태리어로 번역되고 다듬어져 일반 대중에게 전달 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 필요한 것은 값싼 종이였다. 종이는 원래 중국에서 발명되었으며 이는 아랍을 거쳐 10세기에 스페인에, 11세기에 시실리에, 14세기에 프랑스에 전달되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양모가 리넨을 대신하여 옷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추가해서 흑사병의 만연으로 병자들이 입던 많은 리넨의류가 낭마로 바뀌게 되었다. 이 리넨을 원료로 하여 비교적 쉽게 종이를 만들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종이 값은 4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에 알려진 일반문헌은 종교나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일부 지식층 외에는 내용에 별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학자의 문헌은 사물에 관한 관찰 및 지식을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지식은 상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부유한 상인은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했으며 자식을 학교에 보내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했다. 사연히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적혀있는 책을 필요로 했다.

책을 인쇄하기 위한 기계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서양에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37년 발명하였다.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새로운 문헌의 도착, 리넨을 이용한 값싼 종이의 대량생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그리고 지식을 갈구하는 상인 내지는 중산층의 존재로 앨더스가 꿈꾸던 책의 출판은 실현되었다. 15세기 말까지 이태리에서만 5천여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인쇄된 책이 거의 없을 당시의 유럽 성인남자의 문맹률은 50%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책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으며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세는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미디어의 혁명을 맞은 지금 우리는 앨더스라는 사람의 용기와 비전을 본받지 않을 수 없다. 불가능하리라 했던 그리스 문헌의 출판이 가능하였으며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도 예상치 못했을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파괴루스라고 불리우는 CD-ROM을 갖고 있고 CD-ROM을 이용한 출판기술도 갖고 있다. 그리고 'Time Warner'나 일본의 '소니'에서는 이미 'MGM'이나 '컬럼비아사'의 창고에 잠자고 있는 필름의 정리작업과 이의 저작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자료는 비디오와 멀티미디어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은 책보다 컴퓨터 화면을 이용하여 지식을 습득할 것이며 이 미디어 혁명은 우리의 일상생활 패턴을 아주 빠른 시간에 바꾸어 놓을 것이다. 미디어 혁명은 제2의 르네상스 혁명이 될 것이다. [16]